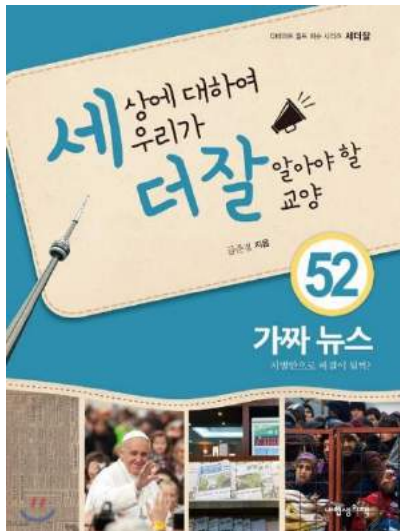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의 기준

김준경

금준경

- 미디어 전문지 미디어오늘 기자
- 가짜뉴스, 미디어 리터러시, 뉴미디어 취재, 저술
- KBS '문화공감' 뉴미디어 트렌드/유튜버 소개



오늘 하지 않는 이야기
‘가짜뉴스’

누가 뉴스를 만들까





신문지

깨끗한 신문지 10kg - 신문 신문용지 폐신문
재활용신문지 완충제 폐신문지 포장재 뽁뽁이
★★★★★ 14개 상품평



8,000 원

최대 400원 적립

무료배송

수요일 9/18 도착 예정

판매자: 세인 < 판매자 상품 보러가기

택배사: CJ 대한통운

수량: 깨끗한신문지(10kg)

캐시적립 혜택 | 최대 400원 적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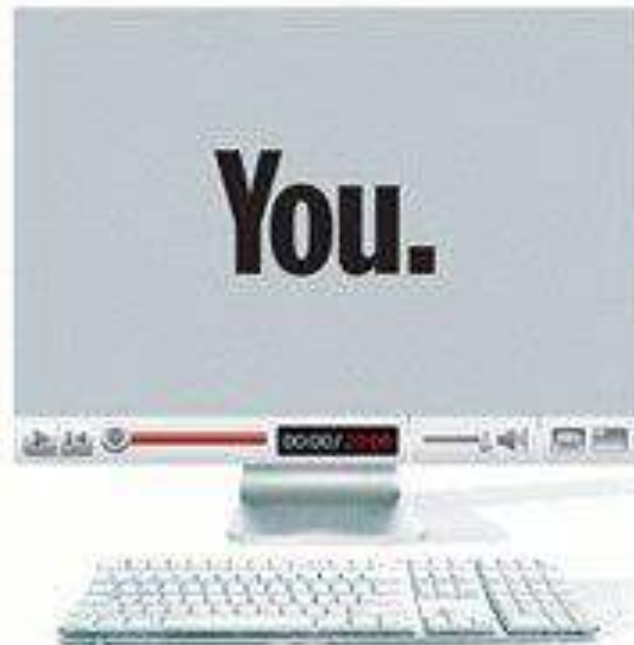


SEPTEMBER 24, 2000 / \$5.00 (U.S.)

www.time.com

TIME

PERSON OF THE YEAR



Yes, you.
You control the Information Age.
Welcome to your world.

뉴스의 '힘'

정치인과 권력자들은
늘 신문과 방송 기사를 체크하고

시민은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현안을 접한다

SBS

만두 제조업체 사장 투신

어젯밤, 서울 반포대교





정말 너무너무 죄송합니다.ㅠㅠ

이제와서 이런 소리가 다 변명으로 들리겠지만 그당시
제 감정에만 치우쳐서 글을 쓰게 된 점

그리고 아이를 잘못 인지한점 기사님께도 너무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저로 인해

기사화되고 아이어머님께도 너무 죄송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상황에서 저의 미숙한 판단과 오해로
글을 보시고

같이 동요했던 분들과 무엇보다 제대로 상황판단을 못
하고 기사님을 오해해서 글을 쓴점에 대해 너무나 죄송
한

마음뿐입니다.ㅠㅠ

정말 기사님께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꼭 기사님
따로 찾아뵙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어떠한 말을 대신해도 부족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잘못 되었을까봐 급급하여 다른건 확인도 못한
채 일단 글로 제가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글을 올려서 여러사람 피해를 본점 죄송합니다.ㅠㅠ

이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꼭 기꺼이 제가 받아들이
겠고 무엇보다 기사님께도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
세상을 보게 된다.

뉴스는 그래서 강력하다

뉴스= 현실?

- 출입처 중심 취재
- 출입처 대상의 입을 바라본다





수 많은 사건 중에서
관점에 따라 특정 이슈를
특정한 관점으로 선별해 다룬다



黒澤 明 監督作品

羅生門

デジタル完全版

KADOKAWA PICTURES presents a DAIHEI PRODUCTION an AKIRA KUROSAWA film

TOSHIRO MIFUNE "RASHOMON" MACHIKO KYO MASAYUKI MORI TAKASHI SHIMURA MINORU CHIYAKI KICHIRO UEDA NORIKO HONMA DAISUKE KATO

music by FUMIO HAYASAKA lighting KENICHI OKAMOTO art director SO MAEJI YAMA recording FRAO OTSUNI cinematography KAZUO MIYAMOTO planning SHOJIRO MUTUKI produced by JINGO MINOBE

written by AKIRA KUROSAWA, SHINOBU HASHIMOTO based on the novel by RYUNOSUKE AKUTAGAWA directed by AKIRA KUROSAWA



DVD
VIDEO

“정경심, 조국에게 내가 안고 가겠다”

권력자 처벌 “조국 청문회 날
정씨가 정회하는 내용 담았다”
8시간 토론회로 여론몰이 예고

권력자 처벌을 위한 여론몰이를 벌이고 있는 조국 청문회 날 정씨가 정회하는 내용 담았다. 8시간 토론회로 여론몰이 예고

김현철 앞에 무릎 꿇은 외교관

조국청문회 날 정씨가 정회하는 내용 담았다. 8시간 토론회로 여론몰이 예고

조국청문회 날 정씨가 정회하는 내용 담았다. 8시간 토론회로 여론몰이 예고

“그들의 뻔뻔함 못참겠다” 터져나온 민심



이제 서울 도심까지 대규모 집회
“조국청문회 날, 조국 씨를
대통령실로 데려다주겠다”

이제 서울 도심까지 대규모 집회
“조국청문회 날, 조국 씨를
대통령실로 데려다주겠다”

이제 서울 도심까지 대규모 집회
“조국청문회 날, 조국 씨를
대통령실로 데려다주겠다”

휴일 비공개 8시간 “정경심 황제 소환”

한국군 “정경심-서영애 일가”
보도사건 피해자 가족수상 출동
정 경수 전장군 아들 조수출판 포구
소환 8시간만에 예정대로 개가

한국군 “정경심-서영애 일가”
보도사건 피해자 가족수상 출동
정 경수 전장군 아들 조수출판 포구
소환 8시간만에 예정대로 개가

한국군 “정경심-서영애 일가”
보도사건 피해자 가족수상 출동
정 경수 전장군 아들 조수출판 포구
소환 8시간만에 예정대로 개가

한국군 “정경심-서영애 일가”
보도사건 피해자 가족수상 출동
정 경수 전장군 아들 조수출판 포구
소환 8시간만에 예정대로 개가



“조국청문회 날 정씨가 정회하는 내용 담았다. 8시간 토론회로 여론몰이 예고

HUBLOT

부산 신시제, 달신 500m 복수
대중 '빅박스' 사랑·실용 14월

복 “신형 북극성형 시계성공”
광명은 이번엔 환관 만 했다

내지않게 김로서 3번째 학신
DMZ 애프터 시계서바이스

남자 100%, 100% 100% 100% 100%

HUBLOT

목동 파격가!

5호선 오목교역 직접연결! 37층 초고층 랜드마크!

1670-3424

느닷없는 부산~헬싱키 노선... 국내 항공사들 뿔났다



“총선용 선심 정책... 핀란드 항공사에 유럽 승객 다 뺏길 판”

최근 핀란드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헬싱키 항공노선을 신설하기로 합의하자 국내 항공 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핀란드 국제항공사인 핀에어는 당장 내년부터 이 노선에 비행기를 띄울 예정이지만 국내 항공사들은 신규 노선 신설로 얻을 게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내 배낭 여행객들은 유럽에 최단 거리로 갈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한 헬싱키행 핀에어를 선호할 것으로 보여 국내 항공사들이 승객 감소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인천국제공항을 허브(hub) 공항으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기존 정책과도 상충되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항공 업계 관계자들은 “항공 협정은 양국 간에 서로 얻는 게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핀에어에만 이득이 되는 협정”이

라며 “국내 항공사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조치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부산~헬싱키 노선 신규 운수권을 국내 항공사 신청을 받아 배분할 계획이지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은 신청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부산~헬싱키 신설로 핀에어가 영남 지역에서 승객 끌어모아

북유럽 3국(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지 시간) 핀란드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내년부터 부산~헬싱키 항공노선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같은 날 국토교통부는 내년 3월 30일부터 핀에어가 부산~헬싱키 노선을 주 3회 운항한다고 발표했다. 신설되는 부산~헬싱키 노선은 김해공항에서 유럽으로 가는 첫

부산~헬싱키 신설 노선 운영 계획

노선	김해공항~헬싱키 공항
일정	2020년 3월 30일부터
운행 횟수	주 3회
환승 네트워크	유럽 100여 개 도시 환승 가능
특징	김해공항을 유럽의 유럽 노선

인천~헬싱키로 대박난 핀에어 최단 유럽노선, 100개 도시 환승만 가격으로 좌석 점유율 88% 부산 직항노선까지 독점 가능성

국내 항공사 年300억 손실 예상 '인천공항 허브 만들기'라는 기존 정책하고도 맞지않아

직항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산·경남 등 영남권 주민들이 그동안 인천국제공항까지 이동하려고 기차나 항공편을 이용해 왔는데 앞으로는 김해공항에서 곧바로 유럽으로 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헬싱키에서 이동할 수 있는 유럽 도시는 100여 개에 달한다.

그러나 국내 항공 업계는 “핀란드에 더 무나 큰 선물을 안겨줬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미 인천~헬싱키 노선을 홀로 운영하고 있는 핀에어가 부산~헬싱키 노선까지 확보해 유럽으로 가는 우리나라 여행객들을 추가로 끌어모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핀에어의 인천~헬싱키 노선을 이용한 승객은 2016년 17만6780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21만7082명으로 크게 늘었다.

인천에서 헬싱키로 갈 경우 9시간 35분이 걸려 최단 시간으로 유럽으로 갈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지난해 좌석 점유율도 88.1%에 달했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핀에어가 승객을 모집하기 위해 국내 항공사 대비 약 80~90% 가격에 비행기표를 내놓기도 한다”고 말했다. 핀에어를 이용한 승객 중 81.4%가 헬싱키를 거쳐 다른 유럽 도시로 가는 환승 승객이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영남 지역에서 헬싱키 방문을 위해 부산~헬싱키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이 연간 570명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한다. 결국 대부분 승객은 헬싱키에서 환승해 유럽 여행을 떠나는 관광객이라는 뜻이다. 항공 노선 신설은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호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우리 항공사들도 당연히 부산~헬싱키 노선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필요성이 없다고 항공사들은 말한다.

김강한·최원우 기자 B2면에 계속

부산~헬싱키 노선 ‘딴지’에 동남권 뿔났다

중앙 언론 ‘수도권 논리’로 보도
지역주민 불편 전혀 고려 않고
인천공항·국적사 이익만 대변
“지역민은 자국민 아니냐” 불만

부산~헬싱키 직항 노선 신설에 대해 수도권의 편향된 논리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부산~헬싱키 노선 신설이 인천공항 허브화와 국적항공사 이익에 반하는 정치적 결정이라는 게 수도권 논리의 핵심으로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논리와 맥을 같이한다. 이에 대해 노선 신설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는 동남권 주민들은 ‘아이없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관련 기사 3면

13일 서울지역 일부 언론은 “부산~헬싱키 노선으로 국적사들은 얻을 게 없고 인천국제공항을 허브공항으로 키우려는 정부의 기존 정책과도 상충된다”며 “부산~헬싱키 노선에 취항하는 핀란드의 핀에어에 한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정”이라고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에는 지역민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는 수도권의 시각이 고스란히 담겨있을 뿐 아니라 장거리노선의 독점을 원하는 인천공항과 국적항공사의 이해관계만 반영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시 고위관계자는 “신공항 논란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노선 신설에도 인천공항과 국적항공사, 국토부 관료 등의 이튼바 ‘수도권 카르텔’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황당하고 아이없다는 논리에 할 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도 “국토부는 인천공항 허브화를 위해 지역 공항에 인천공항의 승격을 뺏기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었다”며 “지역 주민은 자국민으로 대우도 하지 않는데 무엇을 위해 허브화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역 항공업계 관계자도 “지역 주민들이 유럽이나 미주를 가기 위해 내항기나 열차, 고속버스를 타고 오랜 시간 인천으

로 가야 하는 불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데다 핀에어가 국적사 손실 보전을 위해 상무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한 점도 이에 무시했다”고 말했다.

국적사가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도 과장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핀에어는 국적사 손실보전을 위해 대한항공 등과 상무협정(좌석공유와 지상조업 협조 등)을 추진했지만 대한항공이 이를 거절하면서 결렬됐다. 우리나라 항공사는 모두 민영이다. 당연히 돈되는 곳에만 영업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들이 수익을 내면 거의 전부가 대주주의 이익으로 돌아간다. 쉽게 말하자면, 대주주 이익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와 같다.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통상분

야에도 이런 주장이 통하는 곳은 없다.

이날 서울지역 언론은 ‘총선용 선심정책’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하지만 부산~헬싱키 노선은 2014년 한국항공공사가 핀에어 본사를 방문해 부산발 노선개설을 건의하면서 추진이 시작돼 지금까지 핀에어와 부산시, 국토부가 100여 차례 만나면서 협의를 해왔다. 단 한번에 똑딱 나온 정책이 아니다. 서울지역 언론들은 처음엔 부산~헬싱키 노선의 수요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도했다. 이제는 ‘수요를 다 뺏긴다’며 갈팡질팡하는 보도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수도권의 입장은 김해공항 대신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자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해 온 그동안의 행태와 궤를 같이 한다.

이날 한 네티즌은 댓글에서 “인천공항이 중추공항인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럴 이유로 타 지역민들의 지갑에서 인천공항까지 가기 위한 비용을 털고 막대한 시간을 뺏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라고 비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뉴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1. 통제

“**新歷史 창조에 身命바치겠다.**”

全斗煥 육군大將 轉役式 이제 西部前線서

우리에 알맞은
平和的政權

事大·安邊의 舊時代의 조

[illegible]

보도지침

- ▲ 중공, 오늘 19명의 대만 송환을 비난하는 성명 발표. 일체 보도하지 않도록.
- ▲ 건물벽에 의식화 그림을 그린 사건은 보도하지 말 것. →
- ▲ 미국방성, "핵적재 전투기 각국배치"에서 '한국'은 빼고 보도할 것.



18·19일 이를 동안 계엄군에 학생 시민 피투성이로 끌려가.

- 민주화 부르다가 숨지고 중태

(1980년 5월20일 전남매일신문.)

광주 전역 공포 시민 전전긍긍

- 진압군 무차별 난타

- 사망 중상자 속출

- 데모 학생들 유혈 진압에 흥분한 시민들 대거 합세

- 총상 입은 학생 병원에

- 방송국 차량 등 불에 타고

(1980년 5월20일 전남매일신문.)

공수부대의 무차별 살육에 분노한 시민들이 시위 가담

- 18일 오후 3시30분 광주 요소요소에 공수부대 700명 배치

- 금남로 시민학생 무조건 구타, 칼로 찌르고 여학생 옷 벗겨

헬기 2대 공중 지상 입체전, 기자 신문 밝혀도 무조건 구타.

(1980년 5월20일 중앙일보.)

광주 시민정신은 살아 있었다

- 은행 강탈, 금은방 절도, 사재기 없어, 나눠쓰고 외상 거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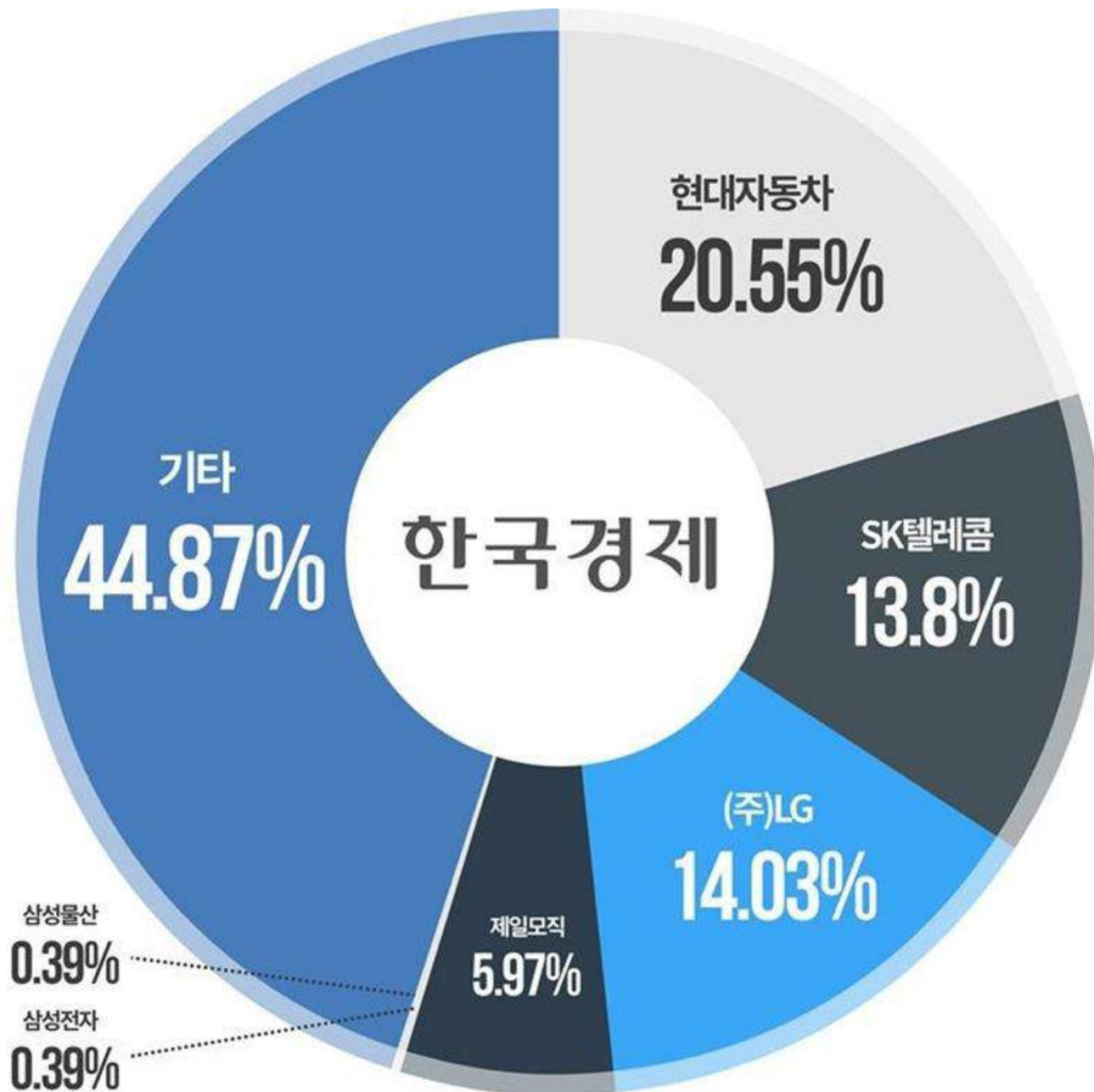
- 자경단 만들어 자율 운영, 수상한 사람 신고 간첩으로 밝혀져

- 시내 대부분 병원, 1주일간 환자 보며 철야 근무.

- 병원에 부상자 들어오자 경증 환자가 자신의 침대 양보해

(1980년 5월20일 중앙일보.)





현대차 이어 기아차 노조도 부분 파업

현대·기아차, 이틀만에 손실액 1000억 넘어

생산차질 5400대…파업 장기화 가능성

지역경제단체 “디트로이트 파산 안보이나”

현대자동차 노조에 이어 가차주 노조도 21일 파업에 들어갔다. 현대·가차주 노조가 연단언론 관련 공동 파업에 나선 것은 지난해 이어 두 번째다. 이날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도 10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한국철강협회도 철강을 비롯해서 울산·포항 등 해당 지역의 경제단체와 협력업체들은 "파업이 장기화하면 한국 자동차산업에 국제경쟁력이 급속하게 저하될 것"이라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생선 차질 우리 현실화
현대차는 이남까지 이틀간 총 8시간의 부분 파업으로 4185대의 생선 차질이 빚어졌고, 이에 따른 손실은 850여원에 이른다고 집계했다. 기아차는 2시간 부분 파업으로 1262대 생선 차질이 224여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합쳐 파업으로 1089여원의 손실이 발생한 셈이다.

노조 파업으로 차량 출고가 늦어지면서 고객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울산 북구 현대차영업소의 한 관계자는 "아반떼, 싼타페, 맥스쿠루즈 등 인기 차종은 주문이 밀려 평균 한 달 정도 기다려야 하는데 파업까지 겹쳐 고객들 불만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노조는 22일 양단체 본교섭을 재거
했지만 사측과 이견차가 너무 커 난항이 예상
된다. 기아차노조는 23일 현대·기아차그룹사
노조수석단 회의를 열어 현대차노조와 함께
한후 관련 수위를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과업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초긴장 상태다. 회사 관계자는 "주말을
근 지부에 따른 손실만 1조7000억원인데
파업으로 피해가 더 불어나게 됐다"며 "생
산 차질이 생기면 해외공장 생산물량을 늘
려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해외에서도 우려하는 파업
현대기아차노조의 파업에 해외 언론도 우
려 섞인 분석을 쏟아내고 있다. 영국 로이
터통신은 현대차노조의 파업이 가결된 지
난 14일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또다시 파업

에 나섰다. 그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터통신은 "1867년 노조 설립 이후 저명한 파업을 선언한 현대차 노조는 글로벌 경쟁국인 일본, 독일, 미국의 자동차업보다 더 많은 장의행위(파업)를 하고 있다"며 "현대차 근로자의 임금도 중국 근로자의 3배 수준이고 미국 근로자의 시간당 급여급을 웃돈다"고 지적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도 같은날 "과연 일상은 감성노조로 인해 현대차 근로자는 글로벌 자동차 업체 중 가장 많은 수를 받고 있다"며 "현대차가 주식시장에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는 것도 감성노조의 영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파업 중단하라” 어떤 뜻일
지역 상공계와 시민단체는 현대기아차
조의 파업 재개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
이고 있다. 김철 울산산자 회장은 “현대차
여는 9400만원으로 우리나라 가구소득
의 5%에 해당한다”며 “이런데도 월 1
대 50여만하는 것은 미국 다트모터스차
파산 전세를 그대러 비싸게 파는 것”이라고
탄핵했다. 시민단체 활동단도 “현대기아
는 노조, 공여, 민익에 반하는 카테
블레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람노조”라
파업 중단을 촉구한다.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 "과업이 장기화하면 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광주공장의 2만대 중 계획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과업 철회를 촉구했다.

자제도 과업을 감하게 비판했다. 경총
"9월 노조 임원선거를 앞두고 자기 계파
사당선을 위해 무리한 요구와 과업을 부
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노조
연례행사처럼 과업을 하고 기업이 그 요
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끊어
준다"며 "파견제도 확대 등을 통해 인력
원의 유연성을 높이고 다음 기간 중 대대
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물산=라인식(광주=최성국/최진석기자)
hmk@hankook.com

한국경제

‘무소불위’ 민노총 ... 53개 정부추천

민노총 대해부

정치·경제·복지 등 쏠분야서 기득권 지키려고 '실력행사'

정작 양보 필요한 대화기구
경사노위선 빠져 '장외투쟁'

불법 폭력 시위와 파업으로 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각종 정부위원회를 통해 노동 현안뿐 아니라 국가정책 결정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관련리포트 A4, 5면**
7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이 직접 참여하고 있는 정부위원회는 53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 국무총리 직속 사회정책위원회 등의 경우 최대 4개 위원회로 구성된 반면, 고용노동위원회는 1개 위원회로만 구성됐다. 정부 복지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사회보장위원회도 김광남 민주노총 위원장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광범위한 정부위원회 참여는 2008년에 노동계 입장을 반영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지만, 민주노총이 도출한 정책 투쟁과 폭력 행위를 서슴치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정부의 진노동 정책에 힘입어 세력을 급속히 확장해

확늘어난민주노총 조합원
(단위:명)

노총에 끌려다니는 정부가 문제

A group of people are protesting in front of the Japanese Consulate in Seoul. They are holding signs demanding the release of Japanese citizens and compensation. The building has large gold characters '總 會 館' (Consulate General) on its facade.

서울, 경기 등 전국 각 지역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2019 최저임금 투쟁 선포 기자회견'이 서울 대충동 경총회관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경훈 기자 kshin@hankook.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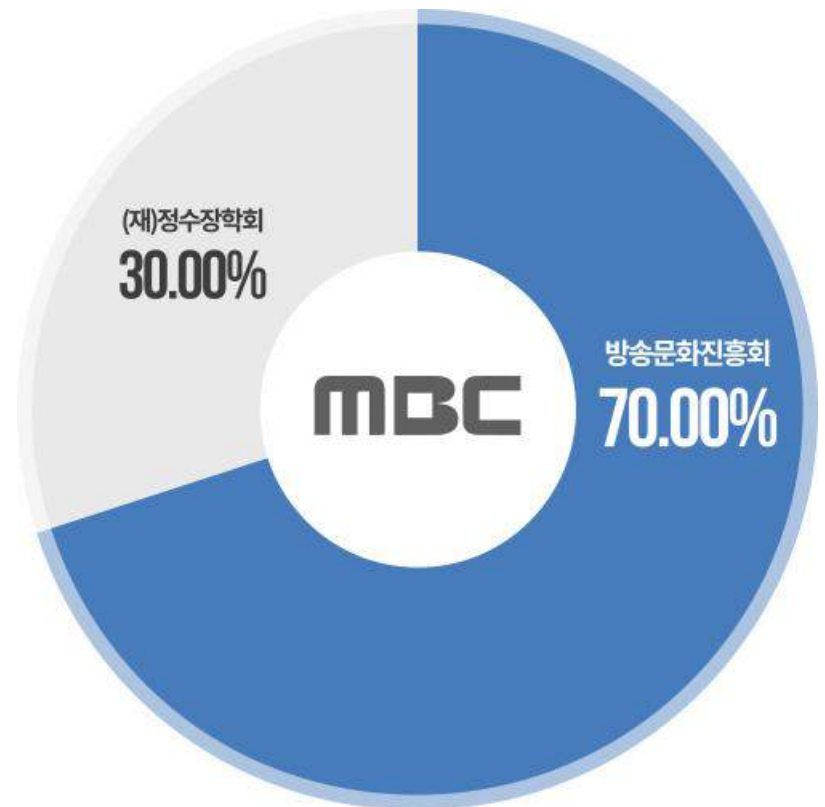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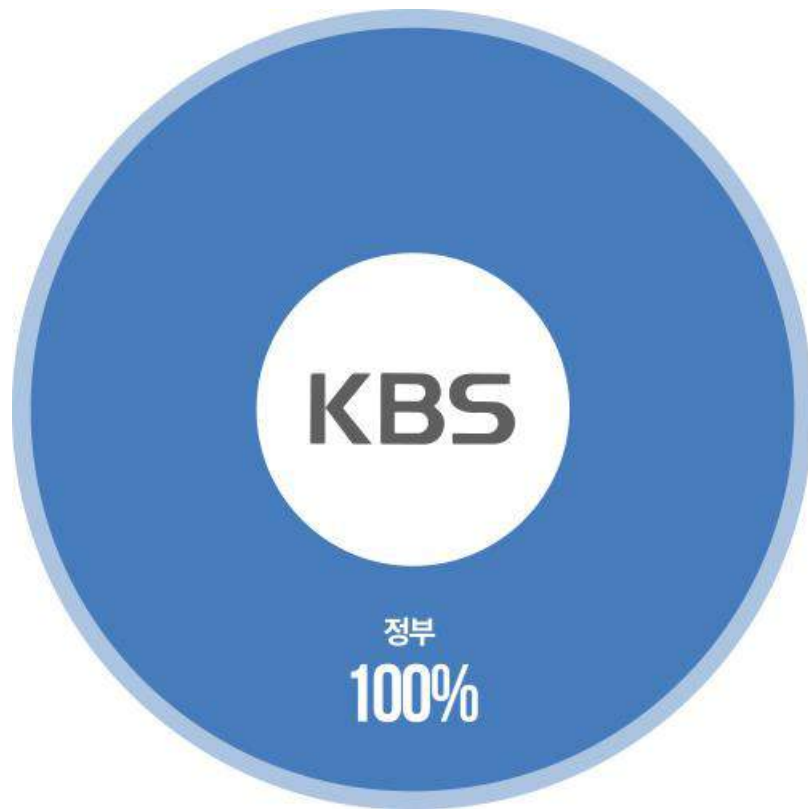
구(ILO) 핵심협약 비준도
원사업이다. 명분은 노동
에 맞춘다는 것이다. 그리
노조활동 문제로 법외노

◆이약단체 넘어 권력집단으로
법원 검찰 등에서도 노동계 입김은 거
세다.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속노동조합
법원에는 소수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가 60명을 훨씬 넘는다는 게 법조계 전언
이다. 김영장, 윤춘 등 국내 대형 로펌이
20~30명인 것과 비교된다. 통상임금 등
노동계에 이과 같고 있는 주요 소수에서 근
로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일따르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노조는 본래 이익단체이자 압력단체다. 미망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할 존재다. 그러나 현 정부와 노조는 곧 정외의 비정치적 노동조준 정점을 펼쳐면서 시민 노총이 무소불위 행태를 자행하는 자양분을 제공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견제와 균형을 잃은 민주노총의 행태는 건설 자영업자, 부품·협력업체 근로자, 연세 현장 일용근로자, 취업준비생, 국민 모두의 피해로 돌아간다.

작금의 민주노총 행태는 2005년 노무현 정부때 돌보아게 한다. 대한항공노조와 아시아나항공 노조가 당시 파업에 들어가자 정부는 이례적으로 긴급조정을 발동했다. 국민 불평과 물류 지연을 우려한 것이었다. 긴급조정이 발동하면

현 정부 때를 돌아보게 한다. 대한항공 노조와 아시아나항공 노조가 당시 파업에 들어가자 정부는 이례적으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국민 불편과 물류 지연을 우려한 조치였다. 긴급조정권이 발동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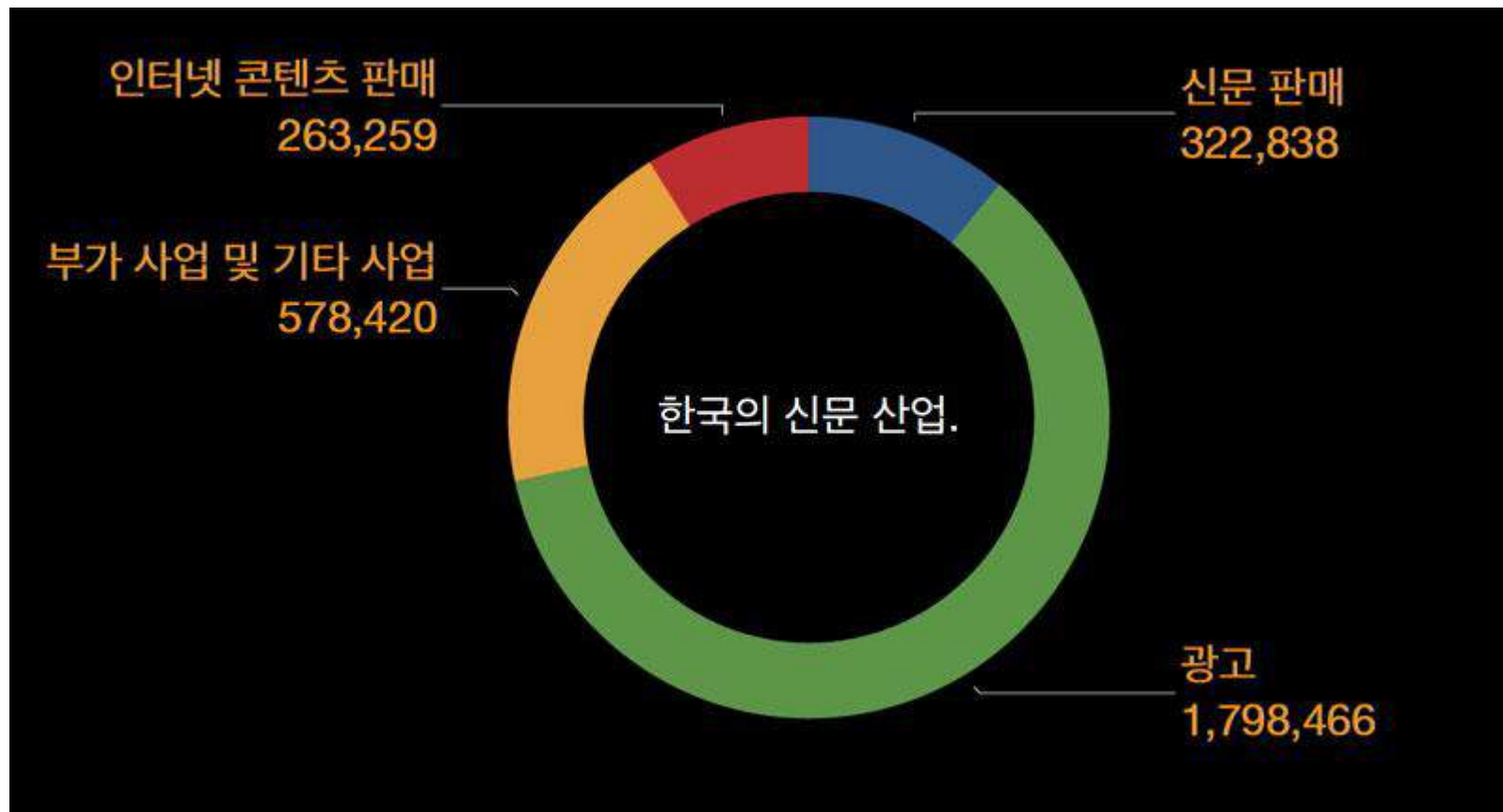
이정현·KBS 통화록 공개

YTN

이 정 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9시 뉴스에 다른데도 아니고 말이야. 이 앞의 뉴스에다
지금 해경이 잘못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고 있잖아요.

2. 광고





저는 참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유미한테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고 물어보니 반도체를 여러 화학약품들에 담갔다 뺐다 하는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의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람한테 유미 병은 산재 같으니 산재 처리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사람은 유미의 병은 회사와는 상관없는 개인적인 질병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유미는 사망했고 우리 집은 유미 치료비로 인해 파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유미 할머니는 유미를 그리워하다 화병으로 돌아가셨고 유미 어머니는 우울증으로 수차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저는 유미가 백혈병에 걸린 이유를 찾고자 여기저기 방문했지만 가는 곳마다 거절당했습니다. 나를 좀 도와 달라고 정당, 언론사, 사회단체, 노동단체를 찾아 다녔지만 모두들 삼성을 상대로 싸울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3. 무한경쟁 환경



MBC 뉴스속보

MS회장 빌게이츠 피살

뉴스 ▾

오피니언 ▾

경제 ▾

스포츠 ▾

연예 ▾

라이

속보 ▸ '익리'의 돌고래 20여마리 美해변에 집단상륙

조선일

[바로잡습니다]

성폭행범 고종석 얼굴 사진 다른 사람으로 밝혀져 잘못된 사진 게재로 피해 입은 분께 사과드립니다



1일자 A1면... 경찰관·주민 등 10여명 "고종석 사진 맞다"
수사 진행 중이어서 고종석 본인 대면 확인은 못 해

서울 일부 지역에 배달된 조선일보 9월1일자 A1면 나주 초등학교
생 성폭행 사건 '병든사회가 마이를 범했다' 제하의 사진 중 '범
인 고종석의 얼굴(위 사진)'은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으
로 밝혀져 바로 잡습니다...

[키워드] 나주성폭행 | 조두순사건 | 성범죄처벌 TOP 히스토리 ▸

온라인 공간에서의 무한경쟁

- 이용자 선호 반영한 알고리즘

많이 본 열독률 높은 댓글 많은 연령별

뉴스 연예 스포츠

1 며느리와 시아버지 불륜 카톡 폭로한 남편 "난 어떻게..." 데일리안

결혼한 지 10년 된 아내가 시아버지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한 남편의 사연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지난 23일 "



2 우려했던 실손보험 대란 현실로 비즈니스워치

받은 보험금 규모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4배까지 오르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도입시기와 맞물려 시장 혼란이 가중됐다. 지난 30일까지 '3세대 실손보험 막차타기' 러...



3 '레깅스' 입었다가 지하철서 혼난 여성..남자가 입으면 ... 머니투데이

#20대 여성 정재운씨(27)는 최근 지하철 역 내부에서 한 노인과 말다툼을 벌였다. 이 노인은 반팔 티셔츠에 레깅스 자람이면 정씨에게 '차라리 벗고 다녀라'며 '안 입은...



4 "김건희, '난 줄리가 아니다' 하는 순간"..여야 모두 '화...' 이데일리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과연 누가 '줄리'를 처음 거론할까 싶었는데 놀랍게도 윤석열 아내 김건희였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전 의원은 1일 ...



5 인간이 버린 일본 후쿠시마 땅, 돌연변이 멧돼지가 점령 서울신문

야생 멧돼지와 일반 돼지의 잡종이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를 돌아다니고 있다. 일본 과학자들은 방사능이 동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깜짝 놀...



6 어린이 시신 1000구 쏟아졌다..교황도 경악한 캐나다 ... 중앙일보

1일(현지시간) 건국기념일인 '캐나다의 날'을 맞아 캐나다의 분위기가 무겁다. 최근 잇따라 캐나다 원주민 어린이들의 유해가 1000구 넘게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날 A...



언론사 콘텐츠 유튜브 조회수 TOP 10

1	삼성 이건희 성매매 의혹… 그룹 차원 개입?	언론사 뉴스타파	조회수 1209만
2	[2차 대선후보 TV토론] 이정희 “세금냈냐” 질문에 박근혜 버럭	언론사 민중의소리	조회수 875만
3	얇게 썬 대패삼겹살… 알면 못먹는 충격적 비밀	언론사 JTBC	조회수 771만
4	성관계 영상까지 올린 철 없는 커플	언론사 TV조선	조회수 715만
5	이노스텔, 성매매 장소로… “외국인 오면 충격 받을 것”	언론사 JTBC	조회수 598만
6	이재명, “노란리본 지겹다”는 여성 향해 ‘버럭’	언론사 오마이뉴스	조회수 585만
7	‘너 잘못 걸렸어!’ 지하철에서 시비 붙었는데… 알고보니 무림고수?!	언론사 MBN	조회수 552만
8	전설 속 ‘17대 1’ 싸움이 현실로?	언론사 MBC	조회수 488만
9	최고 여배우들의 몰락… 북한 음란물 ‘황색 비디오’	언론사 JTBC	조회수 477만
10	“은밀한 곳 만져” vs “의료 행위”… 진실은?	언론사 JTBC	조회수 434만

온라인 공간에서의 무한경쟁

- 조회수 위한 선정적, 자극적 기사

HOME > 산업

배우 김주혁이 사고당시 몰았던 자동차는 벤츠... 가격은?

박경보기자 승인 2017.10.30 19:28 댓글 0



핫

김주혁이 전복사고를 당한 차량인 '벤츠 G63 AMG' <사진=메르세데스 벤츠 홈페이지>

교촌치킨 회장 6촌 '권 상무' 직원 폭행 갑질 폭로 보도에 신메뉴 허니순살 출시, 2018 독도 골든벨, 결식아동 급식 지원 줄줄이 묻히나?

매일신문 배포 2018-10-25 13:24:01 | 수정 2018-10-25 13:41:42 |

"아이만 내렸어요"...엄마 절규 무시하고 달린 '240번 버스'에 들끓는 분노



기사입력 2017-09-12 14:49

최종수정 2017-09-14 22:23

기사원문



85



164



10여개 인터넷 커뮤니티가 '버스기사' 들었다놔다



본문듣기

설정

A10면 TOP

기사입력 2017-09-15 03:11

기사원문



186



368



[사실 확인도 안한채 퍼날라... 애먼 사람 피해]

- 방문자 하루 수십만명, 전파력 커

'버스기사 아이 유기' 첫 글 쓴 뒤 하루새 전국 난리... CCTV에 반전
자극적인 고발 글 인기의 부작용



중앙일보 (joongangilbo)

6월 21일 오후 5:27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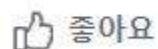
경복궁 역에서 여성이 쓰러지자 주변 남성들은 ‘나 남잔데 어떡해? 미투 당할까 봐’라며 도와주기를 꺼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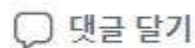
“미투 당할까봐” 역에서 쓰러진 여성 방치한 ‘펜스룰’

‘펜스룰’은 “아내 외의 여자와는 절대로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발언에서 유래된 용어다.

MNEWS.JOINS.COM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素元님, Jeseong Woo님 외 3.1천명

관련성 높은 댓글 ▼

공유 305회

4. 지나친 의도

파업으로 열차 멈춘 그날 어느 고교생 꿈도 멈췄다

20분 늦게 도착, 서울대 면접 볼 기회 잃은 소래고 1등 이희준군

"그날 아침 열차만 멈추지 않았다더라면..." 경기도 시흥시 소래고등학교 3학년 이희준(18)군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어떻게 한탄했다. 그는 철도파업으로 대학진학의 꿈을 접어야 할 위기에 몰렸다.

이군은 27일 오전 7시 소사역 플랫폼에서 전철을 기다렸다. 서울대 농생명공학과 2차 전형인 면접을 보기 위해 나선 길이었다. 그는 1차 전형을 통과한 상태였다. 하지만 10분, 20분, 시간은 흘러가는데 열차가 오지 않았다. 그때 '구로역 전동차 사고로 열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구로역의 야난 사고는 철도 파업 이틀째를 맞아 투입된 대체인력인 군 기관사가 구로역의 지리를 몰라서 생겼다. 이 때문에 인천과 수원발 청량리행 모든 열차가 40~60분가량 지연됐다.

이군은 답답한 마음에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부모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다. 형편이 넉넉지 못한 이군 부모는 아들을 배웅한 뒤 각자의 일터로 나선 뒤였다. 이군 어머니는 "서울대에 전화했는데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꼭 9시까지 와야 한다고 하더라"며



지난달 27일 인천에서 의정부로 가던 열차가 구로역에서 열차 채 움직이지 않자 승객들이 선으로 뛰어내리고 있다.

교장의 분노

희준이 인생에 대한
손배소송 내고 싶다

부모의 한탄

자가용도 못 태워준
못 가진 부모가 죄인

아속해했다. 아들에게 전화해 침착하라며 버스를 타라고 일했지만 콩콩거리는 마음을 다잡기는 어려웠다. 승객들이 한꺼번에 몰린 버스 승

강장은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이군은 서너 대의 버스를 놓친 뒤 가까스로 서울대에 도착했다. 9시20분이었다. 면접은 불허됐다.

이군이 서울대 진학에 매달린 것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이다. 서울대에 진학해야 시흥시가 주는 입학금과 4년간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그는 현재 다른 명문 사립대의 기계공학과 특별전형도 통과했지만 입학금(800만원)과 대학기등록금(600만원) 때문에 다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소래고 흥원표 교장은 "희준이는 자연계열 전교 1등으로 면접만 봤다면 서울대 입학은 문제없었을 것"이라며 "철도노조에 이군이 피해를 본 것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도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군 부모는 "남들은 다 자가용으로 태워다 주는데 형편이 어려워 혼자 전철을 태워 보낸 못난 부모가 죄인"이라며 가슴을 쳤다. 이군은 "그날 아침 멈춘 열차로 내 인생도 멈춘 듯하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8일 만인 3일 파업을 잡았다. 희준이는 대학의 꿈을 접어야 할 형편이다. **정철호 기자**

choon@joongang.co.kr

알려드립니다

본지는 2009년 12월 4일 1면과 인터넷 조인스닷컴에 '파업으로 열차 멈춘 그날 어느 고교생 꿈도 멈췄다'라는 제목으로 열차 파업으로 발생한 철도 사고로 소래고 1등 이희준 군이 면접시각에 늦어 서울대 면접을 볼 기회를 잃었다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철도노조는 이희준 군이 소사역에 도착한 7시 20분경까지 열차는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었고, 전국 철도노조는 노동관계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담당할 근로자를 한국철도공사에 통보하고, 철도 운행에 필수적인 업무를 정당하게 유지하면서 정의행위를 하였으며, 대체 인력 투입과 인력 배치는 한국철도공사의 결정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철도 사고의 발생과 이희준 군이 면접에 늦은 것이 노조의 파업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는 반론을 제기하여 왔으므로 이를 알려드립니다.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본지 7월 5일자 9면에 실린 '미국산 쇠고기 1인분에 1700원'이란 제목의 사진은 연출된 것입니다. 사진 설명은 손님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있다고 돼 있으나 사진 속 인물 중 오른쪽 옆모습은 현장 취재를 나간 경제부문 기자이며 왼쪽은 동행했던 본지 대학생 인턴 기자입니다. 이 인턴은 업무를 시작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으며 이번 사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정정 기사에서 인턴 기자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진기자와 더불어 4일 오후 5시쯤 서울 양재동에 있는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시판되는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을 취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자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른



저녁 시간이라 손님이 없었습니다. 마감시간 때문에 일단 연출 사진을 찍어 전송했고, 6시가 넘으면 서 세 테이블이 차자 기자가 다가 사진 취재를 요청했으나 당사자들이 모두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모두 미국산 쇠고기를 주문했기 때문에 음식점 상황을 독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5. 편견



상인들 “손님들 불안할까 마스크 안써요…복불복이죠 뭐”

대림동 차이나타운 가보니

위생관념 부족…손으로 거리음식 만지작
길바닥에 가래침 함부로 뱉는 등 위험천만
지나는 행인들 10명중 1명꼴만 마스크 착용
마스크 사재기 유행…착용보다 재판매 목적

중국인 밀집지역인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차이나타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유행에도 노상에 진열한 재 비위생적으로 판매하는 음식이 여전했으며 바닥에 침을 뱉는 행인들도 많았다. 야국에서 마스크는 종횡무진 팔리고 있지만, 정작 차이나타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이 드물었다. 이들이 사재기한 마스크는 대부분 중국 현지로 넘어가 재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지하철 안내 버스 앞에는 손 소독제가 구비돼 있었다. 여객자는 “우한 폐렴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지난 27일부터 소독제를 구비했다”고 말했다.

역 안에서 흡사 방역 마스크 여섯 상자를 들고 가는 중국인이 포착됐지만, 정작 마스크를 착용한 행인은 10명중 1명 꼴이었다. 중국에서 웃돈을 얻어주고서라도 품질이 좋은 ‘한국산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중국인의 사재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들 중국인이 구매한 마스크는 대부분 중국 현지에서 재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역사 주변 일부 야국에서는 이를 팔며 크게



29일 오전 중국인 밀집지역인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차이나타운에서 일부 행인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걸어 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유행에도 바닥에 침을 뱉거나 비위생 상태로 길가리음식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짜와, 바스제로 현금가를 제시하며 마스크를 판매하는 곳도 있었다.

실제로 이날 중국 최대 거래 사이트 타오바오(Taobao)에는 수백 건의 ‘한국산 마스크’ 판매글이 올라왔다. ‘바이러스는 물론 미세먼지까지 잡

아 준다’는 한 마스크는 우리나라 가격(6000원)의 세 배에 달하는 12000원(한화 약 2만 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중국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인 웨이보(Weibo)에는 아예 “내가 한국에 다녀와 직접 구매한 한국산 마스크를 판다”는 글까지 등장했다.

시세는 KF94 등급의 마스크를 기준으로 3개 9900원(한화 약 1만 6800원)선, 비슷한 등급의 3개입 마스크가 국내에서 2400원에 거래되는 것을 감안하면 7배에 달하는 폭리

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

마스크 대란에도 한국 채류 중국인들이 위생에 민감한 현실을 반영하듯, 역 주변 차이나타운으로 들어서자 우한 폐렴을 무색하게 하는 비위생적인 행태가 즐비했다.

노상에는 고기, 순대, 팥후루(각종 열매를 꼬치에 꿰어 사람들이들 붙여 굽힌 중국 전통 과자), 도넛 등 음식 대부분이 바깥에 진열돼 있었다. 맨손으로 길거리에 진열돼 있는 팥 후루를 만지는 관공려와 떡을 만지는 상인

들도 눈에 띄었다.

대림동상시장 공영 주차장 쪽 흡연금지 구역에서는 중년 남성들이 모여 담배를 피운 후 가래침을 길바닥에 뱉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일부 행인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만 중국인 또는 화교처럼 보이는 사람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비율이 극히 낮았다. 말을 걸자 “그런 것까지 없잖아 신경 쓰고 어떻게 사냐”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중국인이 자주 드나드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관악구 조원동 일대 자영업자들도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영업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일하는 중국인 종업원들은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손님들과 수시로 접촉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노출될 위험이 크다.

이곳에서 금형집을 운영하는 손모 씨는 “손님들이 불안할까봐 종업원들에게는 마스크를 일단 쓰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다”면서 “우한 폐렴에 걸리는 것은 복불복이라고 생각한다. 안 걸리면 다행이고 걸리면 어쩔 수 없다”며 자포자기한 심정을 드러냈다.

닭집비집을 운영하는 최모 씨는 “식당에서 상식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더 심각해져도 마스크를 쓸 수 있을지 장담할 순 없다”고 했다.

대림동 차이나타운은 인근 대림중앙시장 내 상점의 40%가 중국인 소유일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차이나타운이다.

2019 영등포구 통계연보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내 등록 외국인 3만 6822명 중 2만 5251명(70.5%)이 대림·3동에 살고 있다. 특히 대림2·3동은 외국인 비율이 각각 42.5%와 45.3%, 41%와 200%에 달한다. 외국인 대부분은 조선족 등 중국인이다.

윤호 기자·신주희·유종현 수습기자

(34쪽 12면)

머니투데이

[단독]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찌 나

김평화, 김하늬 기자 입력 2020. 01. 31. 05:46 댓글 0개

▶ [the300]국내서 치료받은 중국인, 지난해 건보급여 5184억원 수급

중국인에게 지급된 연간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이 연 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외국인에 대한 연 지출액 중 72%에 달하는 비중이다.

30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외국인 국적별 건강보험 급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해 중국인 진료 부담금으로 약 5184억원을 지출했다. 2017년 4003억원, 2018년 4871억원을 각각 지출했는데 지난해까지 증가세가 이어진 것이다.

지난해 중국인 51만3930명이 국내 병원에서 받은 진료 건수는 1179만962건이다. 2017년에는 중국인 39만7071명(1016만3316건)이, 2018년에는 43만8986명(1160만9239건)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언론 찾는 방법

▶ 좋은 언론 찾기

- 1.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
 - 언론은 소유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 영화 '안티폭스' 루퍼드 머독 인수 후 달라진 언론 조명
 - 기업 소유 언론은 이해관계에 영향
 - 경향신문 사원주주 도입 후 논조 변화
 - 공영방송의 가능성과 한계

▶ 좋은 언론 찾기

- 2. 광고주의 영향을 얼마나 받고 있나
 - 황유미씨 백혈병 사고 공론화 외면한 언론
 - 특정 기업 보도 삭제되기 부지기수
 - 뉴스타파와 같은 독립언론이 등장한 계기

▶ 좋은 언론 찾기

- 3. 견제 장치가 있는가
 - 기자협회, 노동조합 등 내부 견제 장치
 - 독자(시청자)위원회 등 외부 견제 장치

시사 > 전체기사

[단독]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

클럽 세곳 2000여명 방문 지역사회 2차 감염 우려

입력 : 2020-05-07 07:21 / 수정 : 2020-05-07 08:43



‘동성애 혐오 보도 그만’ 국민일보 노조에서도 비판

국민일보 노조, 자사 성소수자 보도관 비판 “저널리즘 원칙 훼손, 자성과 논의 촉구”

국민일보 차장기자단 “성소수자 혐오 논란에 반성”

10년차 이하 기자들도 “혐오는 언론사의 언어가 될 수 없다”

▶ 좋은 언론 찾기

- 4. 투명하게 소통하고 있는가
 - 논란이 될 경우 이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있는가
 - 뉴욕타임스 한 해 정정보도 5000건, 161년 만에 사과
 - 가디언 기사 수정사항 일일이 기록

경향신문 기자협회 성명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기사입력 2019.12.22. 오후 7:27 최종수정 2019.12.22. 오후 9:36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 설정



1,614



1,009

요약본

가



한국기자협회 경향신문지회는 2019년 12월 13일자 경향신문 1·22면에 게재 예정이었던 A기업에 대한 기사가 해당 기업의 요청을 받고 제작과정에서 삭제된 데 대해 독자들에게 사과하는 성명을 22일 발표했다.

경향신문지회는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성명을 통해 “A기업이 기사 삭제를 요청하며 구체적인 액수의 협찬금 지급을 약속하자 사장이 기사를 쓴 기자와 편집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기사 삭제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며 “편집국장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기사가 삭제된 후) 해당 기자는 사표를 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지회는 “경향신문 구성원들은 ‘독립언론’으로서 경영난과 정부의 견제, 변화된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오직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감시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다”며 “그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적절한 통제 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지회는 이번 사태를 인지한 즉시 사장과 편집국장, 기사를 쓴 해당 기자와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장과 편집국장, 광고국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했다.

좋은 뉴스 찾는 기준

▶ 좋은 기사의 조건

- 우수 저널리즘 프로젝트 지표
 - 미국 퓨리서치센터가 만든 지표
 - 1. 기사당 투명취재원이 4명 이상인가(출처가 분명해야)
 - 2. 이해당사자가 4명 이상 등장하는가(빠진 목소리 없어야)
 - 3. 단일한 관점이 아닌 복합적인 관점이 담기는가

투명 취재원 수

구분(개)	평균
국내 일간지(694)	2.6
뉴욕타임스(72)	8.4
타임스(54)	4.3
아사히신문(72)	3.8

삼성바이오, 화이자 백신 만든다

- 이르면 8월부터 年 10억여 회분 위탁생산
- 국내 공급 추진 - 백신 수급 숨통 트일 듯
- “한국 CMO산업 높아진 위상 보여준 것”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르면 8월부터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위탁생산한다.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기술력과 글로벌 1위 약품 위탁생산(CMO)업체로 자리매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양산 능력 간 ‘빅딜’이 이뤄진 결과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화이자 백신 연간 생산량은 최소 10억 회분(5억 명분) 이상으로, 아시아 시장뿐 아니라 국내에도 공급될 예정이어서 정부의 백신 수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 관련기사 A3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연간 총 3공장에 화이자 백신 생산을 위한 설비를 깔고 있다”며 “8월부터 양산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 기업이 8월부터 미국과 유럽에서 허가받은 백신 양산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했지만 국내 기업과 백신업체가 어디인지는 구체적

으로 밝히지 않았다.

삼성의 화이자 백신 위탁생산은 국내 백신 수급난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백신 접종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지금까지 글로벌 제약·바이오사와 총 1억9000만 회분의 백신 도입 계약을 맺었지만 미국·유럽 등의 자국 우선주의, 원부자재 부족 등이 겹쳐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때문에 국내 백신 접종률은 7%가량으로 전 세계적으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국내 도입 백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혈전 후유증으로 기미 현상까지 생겨 접종에 차질을 빚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기술이전을 받은 노바백스 백신도 허가 9월께로 늦춰졌다. 반면 물속에 코로나바이러스 유전 정보를 전달해 면역력이 생기도록 하는 메신저리보백신(mRNA) 방식인



코로나 집단면역 앞당길 화이자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이르면 8월부터 연간 총 3공장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에서 생산된다. 국내에서 화이자 백신 위탁생산이 시작되면 종장가적으로 국민들의 백신 접종률이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다. 연합뉴스

화이자 백신은 심각한 후유증이 보고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화이자 백신의 국내 생산은 한국 CMO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글로벌 제약사들은 급증하는 코로나19 백신 수요

를 감당하기 힘들어 안정적으로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CMO를 찾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삼성의 백신 위탁생산 시장 진출로 한국은 글로벌 백신 허브로 급부상하게 됐다.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러

시아 스푸트니크 백신을 양산 중인 데 이어 노바백스와 화이자 백신까지 생산을 앞두고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제조 기술이 까다로운 mRNA 백신 양산 기술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했다. 백신영 기자

변된
아보기

- 의심하며 읽기
- 다른곳에서 찾아보기
- ✓ · 빠진것을 찾아보기
- 바이라인 · 출처 확인하기
- 직접 확인해보거나 해보기
- 내가 아는것과 비교해보기
- 주제를 찾아보기

프랑스 정부
대변인
$$\frac{\pi}{2} \leq \theta \leq \frac{3\pi}{2}$$

11/2

'노란조끼' 사기

마크로
대토역

AFP

기자

AST



“신유빈 경기에서...” MBC 이어
서 KBS도 막말 논란 터졌다

“전 세계에서 딱 1명...” 김연아만
보유하고 있다는 신기록

고작 개막 4일 만에... '금메달 목
표 달성하긴 글렀다' 말 나오는...



김용호 “벤틀리 엮기 질주 사건, 동승자는 SM 소속
걸그룹 멤버”



[단독]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국군 전사자 유해 조작'했다는...

“포상금이 무려...” 금메달 딴 안
산X김제덕, 초대박 터졌다

여친이 사둔 '콘돔 2개' 들고 바
람녀 만나러 간 배우, 결국 입 ...



"선금 200에 월50, 저를 내놓습니다" 23살女 당근마켓 판매글 논란

2020.11.19 | 조선일보 | 다음뉴스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글은 도용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당근마켓 경남 진주시 하대동 지역에 자신을 23살 여성으로 소개한 작성자가 전신사진과 함께 신상...



"저를 팔아요".. 당근마켓 또 사람 판매글, 이번엔 20대 女

2020.11.19 | 한국경제TV | 다음뉴스

판매 등의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와 플랫폼의 관리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당근마켓 경남 진주시 하대동 지역 이용자가 지난 18일 '97년생 1월24일, 166cm, 57kg, 먹고 살기 힘들어...



"97년생 166cm 저를 팝니다" 당근마켓에 20대女 판매글 논란

2020.11.19 | 아주경제신문

이번에는 '자신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18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 지역 이용자는 당근마켓에 '97년생 1월 24일, 166cm 57kg 0형, 먹고 살기 힘들어 저를...



"월 50만원"..이번엔 당근마켓 '23세 女' 판매글 파문

2020.11.19 | 한국경제 | 다음뉴스

당근마켓 게시물, 신생아와 장애인 등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던 중고물품...여성'이 매물로 올라왔다. 경남 진주시 하대동 지역 한 이용자는 지난 18...



"선금 200, 월50에 저를 팝니다"..당근마켓에 또 매물 논란

2020.11.19 | 동아일보 | 다음뉴스

당근마켓'에서 자신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18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 지역 당근마켓 이용자는 '97년생 1월 24일, 166cm, 57kg, 먹고 살기 힘들어 저를...



"97년생, 166cm, 월 50.. 당근마켓에 저를 팝니다" 2020.11.19 | 국민일보 | 다음뉴스

중고거래 모바일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자신을 판매한다'는 글이 등장해 또 한 번...나섰다. 문제의 글은 18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 지역에서 올라왔다. 이용자 A씨는...

"97년생, 선금 200 월 50, 저 내놔요"..당근마켓 글 또 논란 2020.11.19 | 매일경제 | 다음뉴스

자신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8일 진주시 하대동 지역의 한 이용자는 당근마켓에 "97년생 1월24일, 166cm 57kg 0형, 먹고 살기 힘들어 저를...



"살기 힘들어 월50에 저 내놔요" 당근마켓에 올라온 판매글

2020.11.19 | 중앙일보 | 다음뉴스

[당근마켓 판매글 캡처] "먹고 살기 힘들어 저를 내놓습니다. 97년생·166cm·57kg...바 있다. 지난 13일 오후 경남 진주시 하대동에서 자신을 23세 여성으로 소개한 A씨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서 자신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18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 지역 당근마켓 이용자는 '97년생 1월 24일, 166cm, 57kg, 먹고 살기 힘들어 저를 내놓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선금 200에 월 50, 스스로 밥 잘 먹고 똥 잘 싸고 잘 자고 잘 씻고 청소 잘하는'이라는 내용을 덧붙였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또 글을 올린 계정은 부적합한 서비스 이용을 사유로 이용이 정지됐다.

최근 당근마켓을 이용해 사람을 물건으로 내놓은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당근마켓에는 '장애인 팝니다'라는 글의 제목으로 친구 사진을 올린 게시자가 10대 청소년의 장난이었던 것으로 판명 났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16일에는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었어요'라는 판매글과 아기의 사진이 함께 올라와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당근마켓은 연이어 이 같은 판매글이 올라오는 것과 관련해 불법 게시물에 대한 제재 사항을 발표했다.

코로나 난리통에... 조합원 교육한다고 딸기밭에 간 서울대병원 노조

민주노총 산하인 서울대병원 노조가 우한 코로나 사태 와중에 노조 교육이라며 단체 휴가를 내고 딸기 따기 체험을 가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지난달 말부터 '2020년 1분기 조합원 하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노조가 조합원들을 모아 노조 교육을 하는 것으로, 교육일엔 유급 휴가가 보장된다. 조합원들은 분기당 하루씩 참가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날짜를 고를 수 있다.

그런데 지난달 27일과 28일 교육 일정은 오전엔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강사로 부터 노조 입문 교육을 받고, 오후엔 딸기 따기 체험을 하는 것이었다. 오는 13일 교육 일정에도 딸기 따기 체험이 들어 있다. 오는 26일과 27일엔 딸기 따기 체험 대신 실내 클라이밍이 진행될 예정이다.

노조는 '정원 및 코로나19로 (신청이) 마감됐다'고 공지하고 있으나, 교육일마다 최소 20명 이상이 교육을 위해 휴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분회 노조엔 서울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보라매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방사선사 등 의사를 제외한 직원 약 2000명이 가입돼 있다.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에선 우한 코로나 사태로 일손이 모자라 휴직했던 직원이 조기 복직하고, 퇴직자까지 자원봉사자로 나서는 상태다. 병원 직원들 사이에선 "모두가 흑사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가 내고 가야 할 정도로 노조 교육이 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노조원이 딸기 따러 간 사이 누군가는 그 자리를 메워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객레건 기자

김정은 옛 애인 등 10여명, 음란물 찍어 총살돼

〈보천보 전자악단 소속 가수 현송월〉

가수·무용수 등 유명 예술인
성관계 장면 촬영·판매·시청
北, 은하수·왕재산 악단 해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연인으로 알려진 가수 현송월을 포함해 북한 유명 예술인 10여명이 김정은의 지시를 어기고 음란물을 제작·판매

한 혐의로 지난 20일 공개 총살된 것으로 28일 밝혀졌다.

중국 내 북수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가수 현송월과 은하수 관현악단장 문경진 등은 지난 6월 김정은의 ‘성(性) 녹화물을 보지 말 것에 대하여’란 지시를 어긴 혐의로 지난 17일 체포됐으며 3일 만에 전격 처형됐다. 이들은 은하수 악단과 왕재산 경음악단

소속의 가수·연주가·무용수로 자신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판매하고 음란물을 시청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제작한 음란물은 중국에까지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일부는 성경책을 소지한 사실이 적발됐다”며 “사형된 예술가는 모두 정치범으로 규정됐다”고 말했다. 특히 은하수 악단은 북한 ‘퍼스트레이디’ 리설주가

활동했던 곳이다. 리설주의 이번 사건 개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은하수·왕재산 악단은 이번 사건으로 해체됐다고 한다. 소식통은 “공개 처형은 은하수·왕재산·모란봉 등 주요 예술단원과 사형수 가족이 지켜보는 데서 기관총으로 진행됐다”며 “사형수 가족은 모두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송월은 보천보 전자악단 소속 가수로 김정은이 리설주와 결혼하기 전에 그녀와 사귀었다는 소문이 있다. 문경진은 2005년 헝가리 ‘카네티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우승한 북한의 대표적인 연주자다. ‘공훈 배우’ 칭호까지 받았다. 은하수 악단 차석 바이올리니스트 정선영도 이번 에 처형됐다. 베이징= 안용현 특파원

(25.5*7.2)cm

▶ 좋은 기사의 조건

- 언론의 사회적 역할 : 억강부약
 - 관훈클럽 한국언론의 좌표에서 언급
 - 언론이 얼마나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느냐
 - 누구의 목소리 들을 것인가
 - 기계적 중립은 타당한가

< 어느 늙은 라이더의 죽음

“항소 비용만 수백 만 원”.. 어느 라이더 가족의 슬픔

이나영 기자 | 2021.05.07



‘남편 사망 사건’을 맡은 변호사 쪽이 한낮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정확히 표현하면, **메시지 없이 pdf 파일만 하나 보냈다.** 그래도 파일을 열어볼 순 없었다. 식당에서 밥 나르는 노동자는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김정미(가명) 씨는 열 시간 노동을 마친 밤 10시께 집에서 파일을 열어봤다. **법원 판결문이었다.** 읽기 전에 잠시 심호흡을 했다. **심장 박동수가 살짝 빨라졌다.**

PERCENTAGE OF LEADS/CO LEADS BY RACIAL/ETHNIC GROUP AND STORYTELLING MEDIUM

MEASURE	FILM	SERIES	TOTAL	U.S. CENSUS
White	64.3% (n=81)	77.1% (n=135)	71.8% (n=216)	60.1%
Black/African American	18.3% (n=23)	9.1% (n=16)	13% (n=39)	13.4%
Hispanic/Latino	6.3% (n=8)	3.4% (n=6)	4.7% (n=14)	18.5%
Asian	4% (n=5)	1.1% (n=2)	2.3% (n=7)	5.9%
Middle Eastern/North African	1.6% (n=2)	1.1% (n=2)	1.3% (n=4)	1.1%
American Indian/Alaskan Native	0	0	0	1.3%
Native Hawaiian/Pacific Islander	0	<1% (n=1)	<1% (n=1)	<1%
Multiracial/Multiethnic	5.6% (n=7)	1.7% (n=3)	3.3% (n=10)	2.8%

- BBC 프로듀서를 위한 지침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가학적 성표현에 주의”

“여성과 남성의 행동에 대해 고정관념 반영해선 안 돼”

“코미디에서 인종, 종교, 연령, 장애 등
다룰 때 고정관념에 유의“

“흑인을 범죄자로, 여성을 주부로, 장애인을 희생자로,
노인을 무능력자로 범주화하지 않는다”

▶ 좋은 기사의 조건

- 언론의 새로운 역할 : 의미부여자
 - ‘저널리즘의 기본원칙’ 언급
 - 현재 사건이 공동체에 어떤 의미인지 해설
 - 맥락 단절 기사 아닌 친절한 기사 수요 늘어나

쿠팡, 왜 에어컨도 없이 일했을까?

이천 화성 인천·고양/전해원 기자, 주하은·이은기 수습기자 | 입력 2021. 07. 01. 06:42 | 댓글 17개

불타버린 쿠팡 덕평물류센터에는 에어컨이 없었다. 2021년 한국의 첨단 물류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왜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 바람을 쐬며 일해야 했을까?



6월21일 닛세패 화재 진화 작업 중인 경기도 이천의 쿠팡 덕평물류센터. ©시사IN 신선영

경기도 이천의 쿠팡 덕평물류센터에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이 초기 확보한 CCTV에 따르면, 지하 2층 선반 위 멀티탭에서 처음 불꽃이 튀었다. 직원들은 선풍기를 이용하기 위해 설치한 멀티탭이라고 진술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그 이전에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 2021년 한국의 첨단 물류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왜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 바람을 쐬며 일해야 했을까?

“축구장 15개 넓이라는데 에어컨으로 커버가 되겠어요? 돈이 훨씬 더 들죠.” 덕평물류센터에서 2년 넘게 근무한 직원 이 아무개씨(31)가 말했다. 면적을 고려하면 냉방은 무리라는 것이다. 덕평물류센터의 연면적은 12만7000여㎡(약 3만8000평)에 달한다. 이렇게 규모가 3만 평 이상인 물류센터를 ‘메가 물류센터’라고 부른다. 인천, 경기도 고양과 화성(동탄), 경북 칠곡에도 쿠팡의 메가 물류센터가 있다. 2014년 완공된 덕평물류센터를 포함해 모두 2010년대에 지어졌으나, 작업공간에는 에어컨이 없다. 일부 사무공간과 휴게실에만 있을 뿐이다.

[뉴스AS] “동성애 죄악” 말만 해도 잡혀간다? 차별금지법 살펴보니



박윤경 기자

+구독

등록 :2020-07-02 04:59 수정 :2020-07-02 11:10

f t TALK link star printer +

일각에선 ‘동성애 반대만 해도 처벌받는다’ 주장
인권위안·국회안 모두 ‘불이익 조치’만 처벌
“형사처벌 과하다” 인권위원 사이 이견도
인권위 “다른 법률도 불이익 조치 형사처벌”
‘성별정체성’ 적시, 외국인 포함...사회적 변화 발맞춰



사회 많이 보는 기사

1. 장대비로 시작한 ‘지각’
장맛비, 열흘 내내 계속
된다



2. “민중의 노래를 들으면
자동으로 눈물이 나와
요”



3. 검찰, ‘스폰서 검사’ 김형
준 전 부장검사 사건 공
수처로 넘겨



4. 환영받지 못했던 에펠탑
처럼...티타늄 입은 세종
문화회관 어떨까



5. 어린이다움, 어른 말 잘
듣거나 값싼 노동력이거
나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내년 상반기 자산매입 축소에 나선 뒤 내년말 전후로 기준금리 인상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1일(현지시간) 나왔다.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IMF는 이날 미국과의 연례협의 후 낸 보고서에서 이런 권고안을 제시했다.

IMF는 정부의 지출 증가로 인플레이션이 장기 목표를 계속 넘는 상황에서는 2022년말이나 2023년초에 아마도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IMF는 정책 이행에 "엄격한 시간표 하에서 능숙한 의사소통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좋은 기사의 조건

- 발로 뛰는 취재
 -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
 - 일방 주장 전달이 아닌 검증, 확인, 분석하는 기사
 - 팩트체크 장르 주목 받기도
 - 인터넷 주장, 타사 기사 받아쓰기 매체 외면해야



“신유빈 경기에서...” MBC 이어
서 KBS도 막말 논란 터졌다

“전 세계에서 딱 1명...” 김연아만
보유하고 있다는 신기록

고작 개막 4일 만에... '금메달 목
표 달성하긴 글렀다' 말 나오는...



**김용호 “벤틀리 엮기 질주 사건, 동승자는 SM 소속
걸그룹 멤버”**



[단독]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국군 전사자 유해 조작'했다는...

“포상금이 무려...” 금메달 딴 안
산X김제덕, 초대박 터졌다

여친이 사둔 '콘돔 2개' 들고 바
람녀 만나러 간 배우, 결국 입 ...

건대역에 정차한 버스에서 3~4살가량의 어린아이가 내렸지만 아이 엄마 A씨는 많은 승객 탓에 미처 내리지 못한 채로 버스 뒷문이 닫혔다.

A씨는 즉시 "아이가 혼자 내렸다"며 버스를 세워달라고 요청했지만, 기사는 이를 무시하고 버스를 운전했다. A씨는 계속 울먹이며 정차를 요청하고, 지켜보던 승객들도 버스를 세워달라고 요구했지만 기사는 묵묵히 운전만 계속했다.

다음 정류장인 건대입구역에 도착해서야 버스는 멈췄고, A씨는 울면서 버스를 뛰쳐나갔다. 버스 기사는 뛰어가는 A씨를 향해 큰 소리로 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대역에 정차한 버스에서 3~4살가량의 어린아이가 내렸지만 아이 엄마 A씨는 많은 승객 탓에 미처 내리지 못한 채로 버스 뒷문이 닫혔다.

A씨는 즉시 "아이가 혼자 내렸다"며 버스를 세워달라고 요청했지만, 기사는 이를 무시하고 버스를 운전했다. A씨는 계속 울먹이며 정차를 요청하고, 지켜보던 승객들도 버스를 세워달라고 요구했지만 기사는 묵묵히 운전만 계속했다.

다음 정류장인 건대입구역에 도착해서야 버스는 멈췄고, A씨는 울면서 버스를 뛰쳐나갔다. 버스 기사는 뛰어가는 A씨를 향해 큰 소리로 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배원이 왜 죽는지, 비로소 알게 됐다[남기자의 체헨리즘]

남형도 기자 입력 2019. 07. 06. 06:10 댓글 1251개

4층 건물 두 계단씩, 우편물 2초, 택배는 30초, 싸인에 전화에..일반·등기우편을 겹치니 숨이 '턱턱'

[편집자주] 수습기자 때 휠체어를 타고 서울시내를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들 심정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생전 보이지 않던, 불편한 세상이 처음 펼쳐졌습니다. 뭐든 직접 해보니 다르더군요. 그래서 체험해 깨닫고 알리는 기획 기사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이름은 '체헨리즘'입니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체험과 저널리즘(journalism)을 하나로 합쳐 봤습니다. 사서 고생한단 마음으로 현장 곳곳을 몸소 누비겠습니다. 깊숙한 이면의 진실을 알려겠습니다. 소외된 곳에 따뜻한 관심을 불어넣겠습니다.



남기자의 체헨리즘



M10 머니투데이

오토바이를 처음 타봤다. 집배원들이 배달할 때 타는 거였다. 이걸 타고, 골목골목 누비며 우편물을 누군가에게 전해 준다고. 그러니 오토바이 위에 올라야 했다. 조금 무서웠지만,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들의 노력을/사진=문백남 지부장



문 씨는 이제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신분을 되찾으면서 임시로 기초생활수급비 월 32만 원을 받게 됐다. 하지만 아직도 수술비를 마련할 길은 없다. 수술받지 못한 오른손 엄지는 여전히 떨리고 제대로 일을 해낼 수 없다.

문 씨를 발견한 이주현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37·사법연수원 40기)는 “사회에서 방치돼 있었던 사람인 만큼 먼저 신원 복귀와 치료를 한 뒤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해 실종선고 취소소송을 제기해 사회에 복귀시켰다”고 했다. 문 씨를 진료한 의사는 그를 괴롭힌 목소리의 정체가 이훈과 산재로 생긴 우울증에 따른 환청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문 씨는 술을 흡친 행동에 대해 8월 11일 1심에서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뉴스 분석 기준

- 기사 속 정보의 출처가 분명한가
- 기사에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가
- 기사에 등장한 사람이 실명으로 나왔는가
- 논쟁적인 이슈일 경우 당사자의 반론이 들어 있는가
- 다른 기사와 비교해 빠진 목소리는 없는가
- ‘억강부약’이라는 역할에 부합하는가
- 현장을 취재하고 쓴 기사인가. 이 점이 분명히 드러났는가
- 어떤 의미인지 판단하고, 맥락을 풍부하게 전달하는가

뉴스 생태계를 위한 우리의 역할

▶ 우리의 역할

- 사이다 언론이 좋은 언론인가
 - 뉴스 소비자 역할 중요
 - 한국, '자신의 견해와 같은 뉴스 선호' 4위
 - 사회적으로 필요한 뉴스와 나를 대변하는 뉴스 구분 필요

▶ 우리의 역할

- 포털이 보여주지 않는 좋은 뉴스 찾기
 - 좋은 뉴스 찾고, 공유하기
 - 좋은 뉴스에 힘 보태기(응원, 구독, 후원)
 - 독립, 대안 미디어에 관심 갖기



대체공휴일법,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근로기준법'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 검토해 보니...

더 알아보기 >

—
※ 안녕하세요, 기사 작성한 남형도 기자입니다.

당초 제목이 <개발자 꿈꾸던 모범생, '부따' 강훈의 이중생활>이었습니다.

모범생이라 할 수 없고, 가해자에 이입할 수 있는 우려 등 독자 분들 의견에 깊이 공감해, 뒤늦게나마 본문에서 관련 내용을 빼고, 제목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가해자에게 서사를 부여하지 말라"는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름 모를 피해자들을 위한 기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꼼꼼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형도 기자 올림.

추적단 불꽃



저희는 기사를 꿈꾸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헤드라인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각 기사묶음 타이틀은 기사 내용을 기반으로 자동 추출됩니다.



삼성·LG전자 올 1분기 '어닝서프라이즈'?

86

어라? 넷플릭스 30일 무료체험 사라졌네

25

박범계 "수사팀, 떳떳하면 외압으로 느낄 이유 없어"

65

산업은행, 법원에 쌍용차 의견 낸다...'회생절차 임박'

53

경상수지 열 달 연속 흑자...선박항공 운임상승 등 영향

29

익산 미륵산 여성 피살사건 피의자 검거...자택서 긴...

46

정치

[일반](#)
[국회/정당](#)
[청와대](#)


"끝날때 까지 끝난 게 아니다"...피해...

與 승리땀 李-李 양강구도 재현...野 승리땀 尹-安 국민의힘...

[📺 문화일보](#)

[데스크칼럼] 2016년 미국과 닮은 2021년 한국의 정치상황

[📺 헤럴드경제](#)

투표율도 부동산 따라? 강남3구 상위권, 금·관·구는 하위권

[📺 중앙일보](#)

"文정권 4년 심판해야"...국민의힘, 막판 표몰이

[📺 뉴스1](#)

[르포]출근길 늘어선 투표 행렬...표심은 어디로

[📺 아시아경제](#)

언론사별 가장 많이 본 뉴스 ①

더보기

오전 10시~오전 11시까지 집계한 결과입니다.

[속보] 오전 10시 투표를 서울 9.5%
부산 8.5%... ..

[📺 조선일보](#)


매일 피임약 먹었는데...칠레여성
170명 임신했다, 무슨 일

[📺 중앙일보](#)


48일만에 600명대...또 교회 집단감염

[📺 MBC](#)


48일 만에 600명대로...9일 정부 '거리두기 조정' 촉각

[📺 JTBC](#)


100만 원어치 배달 음식 죄다 복도로 '획획'...뭘 일?

[📺 SBS](#)
